

도깨비 OST 파트14 원곡자 홀대 '구설수'

오프닝 타이틀 삽입 한수지의 50초 버전 헤이즈가 부른 3분30초 버전 편곡하면서 발생

신드롬을 일으킨 tvN 드라마 '도깨비'가 종영 후 OST와 관련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25일 방송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도깨비' OST 파트 14. 라운드 앤드 라운드(Round and round)가 원곡자를 홀대했다는 구설이 오르고 있다.

드라마 오프닝 타이틀 음악에 삽입된 한수지의 50초 버전을 래퍼 겸 가수 헤이즈가 부른 3분30초 버전으로 편곡하면서 사단이 났다.

대중적으로 인기를 누린 헤이즈의 이름이 전면에 표기됐고, 비교적 덜 알려진 한수지는 피쳐링 가수로 표기가 된 것이다. 한수지는 지난 21일 '라운드 앤드 라운드'가 공개된 직후 "어쩌면 내가 너를 제일 기다렸어 근데 아프구나"라며 자신이 피쳐링 가수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예뻐서 아쉬움을 표했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헤이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녀가 해명에 나섰다. 헤이즈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저는 저 스스로 멋있지 못 한 행동은 여태껏 한 적도 앞으로 할 일이 없으며 피쳐링 표기에 대해서는 저도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썼다. "저는 누구의 어떤 것도 뺏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르게 된 '라운드 앤드 라운드'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

인 루트로 가찬 제의가 들어왔다"며 "도깨비를 애청하는 저로서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여러분의 귀에 이미 익숙해져있던 목소리가 아닌 다른 가수가 재녹음한 버전으로 곡을 발매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다"며 "그에 대해서 저는 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저는 드라마 관계자도 아니고 OST 기획자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도깨비' OST 제작을 맡은 CJ E&M 음악사업부도 해명하고 나섰다.

CJ E&M 음악사업부는 "라운드 앤드 라운드는 남해승 음악감독이 방송 시작 전부터 풀버전(연주곡)으로 작곡해 둔 작업물"이라며 "그러던 중, 드라마의 타이틀 영상용으로 이 곡이 선택됐고 명확적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목소리로서 한수지씨를 기용해서 앞 부분 50초만 우선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즉 남 감독이 이 곡을 작곡 구상했을 때부터 한수지씨 부분 외에는 다른 목소리의 가창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수지가 부른 50초 부분을 따로 발매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발매된 풀 버전의 음원에 해당 50초 부분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며 "방송용 타이틀 곡들은 보



통 원곡을 20초, 30초, 50초 등 방송영상 길이에 따라 짧게 짧게 편집하는 만큼, 그 편집된 곡들을 따로 발매하지 않았던 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수지를 홀대했다는 네티즌의 목소리를 귀담아 "원곡자와 OST제작진까지 모두 모여 한수지씨의 50초 버전에 대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출범 최초 테크니컬 리포트 발간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25일 2016시즌 경기 데이터와 지표를 분석한 시즌 총괄보고서격인 2016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를 발간했다.

연맹이 테크니컬 리포트를 내놓은 것은 리그 출범 후 처음이다.

2016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에는 2016시즌 K리그 클래식(1부)과 챌린지(2부) 총 450경기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득점(시간대별, 슈팅 위치별, 득점 방법별), 패스(길이, 정확도, 성공률, 크로스 키 패스), 볼 점유, APT(실제 경기 시간) 등 여러 경기 지표를 토대로 각 부문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구단과 선수들의 기록이 담겼다.

또한 분석된 지표를 기반으로 세계 정상급 타 리그와의 정량적 비교를 통해 현재 경기력 평가와 향후 경기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클래식 챌린지 시즌 Overview 및 시즌 주요토픽, 구단별 시즌 리뷰도 담아서 2016시즌을 기억하기 위한 좋은 시료가 될 전망이다.

2016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는 각 구단 및 관계사에 배포되며 리그 팬들을 위해 K리그 홈페이지(www.kleague.com) 등 K리그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E-Book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연맹은 향후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 발간을 정례화하고 최신 스포츠 분석기술을 접목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 현장 지도자들과 구단·연맹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근기자

대한체육회, 동계아시아게임 선수단 숙소 '극우성향 서적' 비치 관련 시정 요구

다음달 일본 삿포로 동계아시아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자택 숙소에서 극우성향 서적이 비치된 것과 관련 대한체육회가 공식 항의서를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체육회는 25일 "선수단 공식 숙소인 '하야 호텔' 객실 내에 극우서적이 비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일과 25일 대회조직위원회에 유선으로 시정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조직위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라는 대회 취지와 맞지 않는 서적이 선수단 숙소에서 비치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가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는 제8회 삿포로동계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우리 대표팀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 선수단 2000여명은 하야호텔 마코미야 호텔 & 리조트를 숙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호텔 객실에는 위안부 강제동원과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내용의 극우성향 책이 비치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 책은 호텔 체인 최고경영자 모토야 도시오가 쓴 것으로 일본 언론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당초 이 호텔은 이 같은 논란에도 "객실에서 관련 책들을 치울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대회 조직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서적을 옮길 의향을 있다고 한발 물러났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 제36차 부칙에는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OCA 대회 관련 장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OCA헌장에 따라 스포츠 기본이념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설 명절, 이미지·남정임·김덕수와 함께

KTV 국민방송, 국악콘서트 등 설 특집 프로그램 다채

KTV 국민방송 설 명절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고전명화, 국악콘서트, 다큐멘터리를 특집으로 선보인다.

28일 밤 8시 KTV 시네마는 영화 '엘레지의 여왕'(감독 한정모·1967)을 방송한다.

가수 이미지의 반생애를 그린 전기물이다.

남정임이 이미지 역을 맡았다.

열 살에 시골의 작은 노래 콩쿠르에서 입상한 것을 계기로 작곡가에게 발탁돼 가수로 대성한다 뒤 어린 시절 헤어진 어머니를 만나는 이야기다.

이미지의 히트곡과 함께 펼쳐진다.

앞서 26일 아침 8시20분 HD 특선, 다시 보는 문화영화에서는 1960년대 이미지의 흑백 영상을 보여준다.

영화 배역과 실제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다.

29일 오전 11시 '국악콘서트 울림'에서는 배우 겸 국악인 양금석, 김덕수 사물놀이패, 태평소 연주자 김성민이 함께 펼치는 '2017 새해 음악회'를 즐길 수 있다.

17일 음성문화예술회관 공연 실황이다. 경기민요 이수자인 양금석이 청아하고 섬세한 민요 가락을 들려주고,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농악과 무속 장단이 어우러진 '신(神) 모듬'을 선사한다.

김성민은 척 맨지오의 영화음악 '산체스의 아이들'을 태평소 협연으로 선보인다.

27일 오후 4시 다큐멘터리 '유료존, 일자의 비밀'은 독일과 스페인 현지 취재물이다.



남정임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경기 참체에 허덕인 두 나라가 지난해 유료존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고용대국이 된 비결을 분석한다.

30일 낮 2시10분에는 다큐멘터리 '빙판 위의 체스'를, 금빛 평창을 꿈꾸다를



이미지

볼 수 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 세계무대에 한국 컬링을 각인시킨 경기도청 여자컬링팀의 평창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땀과 눈물을 전한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성로 1482 / 063) 320-0114